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과 모-자녀관계의 재구성: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최 정 아¹⁾

이 재 립²⁾

김 영 선³⁾

도담마인드케어센터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양육실천자이자 모-자녀 관계를 구성하는 주체인 어머니는 무엇을 체험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첫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15명이었고,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주제분석법으로 면접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대주제는 ‘사춘기 길목의 아이와 엄마’로 구성하였고, 하위주제는 ‘사춘기의 시작’, ‘스마트폰, 게임과의 전쟁’, ‘한 발짝 떨어지기’였다. 두 번째 대주제는 ‘4학년 아이 공부시키기’였고, 하위주제는 ‘아이의 학습에 대한 불안, 사교육에 대한 고민’, ‘공부 습관 들이기’, ‘내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어’였다. 마지막 대주제는 ‘나는 11년 차 엄마’였고, 하위주제는 ‘삶의 중심은 아이’, ‘엄마의 시행착오’, ‘엄마도 성장 중’,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었다.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 모-자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지평을 넓히고, 모성이데올로기와 여성의 개별성이 동시에 강조되는 사회적 양가성의 맥락에서 어머니역할 ‘11년 차’ 여성들의 고군분투와 갈등, 성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모성성, 어머니 정체성, 어머니역할, 초기 사춘기, 초기 청소년기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20년 수시과제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의 경험: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이재립)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연구임. 해당 과제는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7S1A5B8A02072579).

1) 신지용정신건강의학과 부설 도담마인드케어센터, 심리상담사

2)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및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3)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E-mail: zieb742@gmail.com)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재 한국 사회에는 어머니역할에 대해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과 엄마이기 이전에 여성인 개인으로서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어머니들은 모성이데올로기의 영향 속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에게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의 책임을 지우고 자녀에 대한 헌신을 강요하는 제도화된 모성 사이에서 갈등한다. 또, 전통적인 어머니상을 내면화하여 희생적인 어머니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아실현의 욕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 모성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의 억압에서 벗어나 개인성을 지닌 여성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다. 페미니스트적인 어머니노릇을 통해 모성을 어머니 자신이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윤택림, 2001; 이진희, 2015; O'Reilly, 2004).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기에 완벽할 수 없으며, Winnicott(1964)이 말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 enough mother)’처럼, 좋은 어머니에 대한 기대와 완벽한 어머니상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진희, 배은경, 2013). 특히, 현재 초등학교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대체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존재로서 자신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교육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모성이데올로기와 개인으로서의 어머니 사이에서 갈등할 가능성

이 있다.

본 연구는 양육실천자로서의 어머니를 둘러싼 모순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어머니는 모성이데올로기, 집중적 어머니역할(intensive mothering; Hays, 1996), ‘슈퍼맘’ 신드롬(황경아, 홍지아, 2011) 등 희생적 어머니에 대한 기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이기 이전에 독립된 여성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행복을 중시하는 페미니즘의 물결 또한 거세다. 이렇듯 어머니로서의 여성과 개인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모순적인 규범적 기대가 공존하는 상황은 사회적 양가성(sociological ambivalence; Connidis & McMullin, 2002) 또는 어머니역할의 양가성(ambivalence of mothering; Davies & Welch, 1986; Takševa, 2017)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양가성의 맥락에서 현실의 어머니는 모순된 요구와 기대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내적으로 갈등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과정에서 어머니역할을 실천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모-자녀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양육의 실천자로서 어머니에 주목한다.

어머니로서의 내적 갈등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는 돌봄이 축소되는 대신 자녀의 학습이 중시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기에 심화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만 9-10세)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초기 청소년기(김윤희, 김현숙, 2016; 박재숙, 2011; 최유선, 손은령, 2015)로, 초기 사춘기에 들어서는 시기, 즉 청소년기로의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최유선, 손은령, 2015; Rice & Dolgin, 2009). 이 시기는 자녀의 성장발달이 가속화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위 말하는 사춘기의 징후가 시작

된다. 점차 2차 성징이 나타나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심리적으로 독립하려는 욕구가 생긴다. 부모에 대한 반발심이 나타나고 감정 기복과 짜증,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한다(강문정, 강대중, 2017; 구미희, 권혁철, 2020; Collins & Laursen, 2004; Steinberg, 2005).

이렇게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인 시기는 어머니에게 있어 ‘엄마경력’ 10년을 넘기는 시점이자, 중년기로의 전환이라는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경험이 뒤따르기도 하는 시기이다. 사춘기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불안정한 행동과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럽기도 하고 때로 좌절에 빠지거나 우울, 무력감 등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한다(박태경, 박재연, 2018). 이러한 과정에서 이전까지 수행해 오던 어머니역할의 수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있다. 사춘기에 접어든 자녀의 불안과 혼란을 이해하면서 모-자녀관계의 변화를 수용하고 재조정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오지현, 2013; Collins & Laursen, 2004; Steinberg, 2005). 그러나 양육의 실천자로서 어머니의 관점에서 초기 사춘기의 변화와 적응을 심층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한편,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진입하면서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관심을 더욱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자녀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바라고, 좋은 직업과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학업성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김소운, 최성우, 2015). 명문대학을 목표로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습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은 학습내용이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많아져서 학습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신의진, 2011).

자녀의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불안은 전통적 성별분업의 논리와 만나면서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매니저’로서의 어머니 역할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박소진, 2009). 자녀의 학습량을 조율하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초등학생 어머니의 중요한 임무로 여겨지며, 좋은 성적을 얻고 상위권 대학을 보내기 위한 전초전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많은 어머니들이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다. 자녀의 교육 매니저의 역할을 자처하며, 자녀교육에 있어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여겨지기까지 한다(김소운, 최성우, 2015; 박소진, 2007; 박혜경, 2009). 반면, 아버지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학습이 중요해지면서 아버지역할은 점차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친구 같은 아버지’로 아버지상이 변화하면서 영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녀의 놀이, 여가의 파트너로서의 아버지역할이 기대되는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한국의 청소년기 가족은 ‘매니저 엄마’와 ‘부양자 아빠’로의 성별분업이 지배적이다.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는 자녀를 낳고 어머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초기 양육 경험에 대한 연구(권경숙, 2008; 류수민, 이하정, 2015; 전가일, 전현옥, 2017;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정은경, 2009; Choi, Henshaw, Baker, & Tree, 2005)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키워드

역시 부모됨, 모성경험 등이다. 학령기로 접어들어서는,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보내고 학부모가 되는 전이과정에서 어머니가 경험하는 현상과 부모역할에 대한 탐색(김창복, 이신영, 2013;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외에는,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기 시기 어머니가 무엇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연구(강버들, 2020; 권상인, 양지웅, 2019; 김소연, 2017; 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2017; 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정민, 2014)도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어머니 관련 선행연구는 자녀를 중심에 놓고 조력자, 양육자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살펴보는 연구와, 가부장적 모성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여성 개인에 집중하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연구의 흐름은 학문 분야에 따라 분절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의 어머니는 자녀의 양육자임과 동시에 한 여성으로서 양육을 실천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현실의 어머니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머니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한 개인으로서 갈등하는 어머니, 모-자녀 하위체계에서 보면 자녀와 떼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개인으로서도 존재하는 어머니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는 자녀의 학습지원과 관련된 연구(김소운, 최성우, 2015)가 있을 뿐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는 부모자녀관계, 자녀교육과 어머니역할,

어머니의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고민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과 부분등교가 이루어지면서 가정에서의 돌봄과 학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즉 양육실천자로서 어머니의 역할과 부담이 이전보다 커졌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는 어머니들의 체험을 탐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실천 체험(lived experiences)을 심층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전이기에 어머니의 자녀양육과 교육,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 청소년기로의 전환기에 어머니가 양육실천의 장에서 무엇을 체험하는지를 발견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초기 사춘기 양육자를 위한 부모교육과 상담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제언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실천의 장에서 무엇을 체험하는가?

연구문제 2. 자녀가 초기 사춘기에 진입하면서 모-자녀 상호작용 및 어머니의 정체성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2020년에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서울 및 수도권 거주 어머니를 모집하였다. 첫째 자녀의 학년을 기준으로 참여자를 모집한 것은 자녀의 사춘기 진입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어머니의 체험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또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어머니들의 양육체험을 알

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 직업, 자녀의 성별 등에서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거주지역은 학군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 내에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참여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녀가 국·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와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의 경험의 차이를 다룰 수 있다는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라 자료수집 후반부에 사립학교 학부모인 어머니를 추가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중단적으로 추적하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번호	참여자(가명)	연령(만)	경제활동*	거주지역	자녀 성별 및 연령	첫째 자녀 초등학교 유형
1	이순희	42	주부	경기	여(11세), 남(11세)**	국·공립
2	김연화	53	가끔 일함	서울	남(11세)	국·공립
3	차미자	45	주부	서울	남(11세), 여(7세), 여(7세)	국·공립
4	노지원	48	가끔 일함	서울	여(11세), 여(7세)	국·공립
5	윤은지	40	전일제	서울	남(11세), 여(6세)	국·공립
6	강성경	42	전일제	경기	여(11세), 여(11세)**	국·공립
7	조순영	41	전일제	서울	남(11세)	국·공립
8	정희경	42	주부	서울	남(11세), 여(10세), 남(7세)	국·공립
9	송창숙	39	전일제	경기	여(11세), 남(9세)	국·공립
10	서은정	34	주부	서울	여(11세), 남(8세), 남(6세)	국·공립
11	오정현	38	주부	인천	여(11세), 남(7세)	국·공립
12	최송이	39	가끔 일함	서울	남(11세), 여(7세)	사립
13	안유리	47	주부	경기	여(11세)	국·공립
14	문서연	43	가끔 일함	인천	남(11세), 여(9세)	국·공립
15	박하은	38	주부	서울	남(11세), 여(7세)	사립

주. 김영선, 이재림, 최정아(2021)의 표 2를 수정한 것임. * 연구참여자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직업은 본문에만 제시하였음. ** 쌍둥이

구센터 「학부모교육참여패널조사」의 학부모패널 533명에게 모집문건을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학부모패널에는 매우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맘카페 등을 통해서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이질적인 특성의 참여자를 모집하기에 적절하다고 보았다. 모집문건을 문자로 발송하였으며,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신청하도록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는 총 15명으로 연구참여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42세(범위 만 34-53세)였고, 거주지역은 서울 9명, 경기 4명, 인천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의 가족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 가구(부모+자녀)는 13명, 3세대 가구(조부모+부모+자녀)는 2명이었다.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 1명은 3명, 자녀 3명인 경우는 3명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첫째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8명, 여아가 7명이었으며, 그 중 2명은 쌍둥이였다. 첫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는 국·공립초등학교가 13명, 사립초등학교가 2명이었다. 연구참여자는 모두 기혼상태였기 때문에 아버지역할이나 부-자녀관계도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한부모 어머니의 관점이 누락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연구참여자의 경제활동 여부는 면접 당시 전업모는 7명, 취업모는 8명(전일제 4명, 파트타임 4명)이었다. 전일제 어머니의 직업은 금융직, 안전관리기술자, 언론인, 콜센터직원이 각 1명이었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경우, 남편의 사업을 도와 주 1-2회 정도 일을

하는 경우가 2명, 개인과외 1명, 자영업 1명이었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졸 1명을 제외하고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서, 교육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2. 자료수집

연구참여자를 개별로 만나 대면 심층면접 방식으로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이 이루어진 시기는 4학년 2학기가 1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2020년 10월 12일-11월 6일) 기간이었다. 면접 장소는 투명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 조사전문업체의 면접 전용공간이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자는 본 연구의 저자 중 2인이었다. 한건을 제외하고는 연구자 2인이 번갈아 면접을 이끌어 가는 방식을 취하여 연구참여자와 교감하면서 함께 자료를 구성해 나갔다. 부연설명을 요청하는 질문(probing questions)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면접자가 1인일 때보다 구체적이면서도 풍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회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나, 깊이 있는 이야기가 오갈 수 있도록 면접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다. 실제 면접은 평균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접 질문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부모로서의 심정은 어떠한지, 고학년으로 접어들면서 부모역할에 변화가 있는지,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과 어머니역할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비밀보장에 대한 안내와 참여여부 및 녹취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은 후 실시하였다. 연구자 3인이 함께 개발한 반구조화된 면접가이드를 활용하였으나,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편안하게 체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사용하였다. 또한 주간 연구회의 등을 통하여 연구자 3인이 자료수집 과정을 점검하고 초벌 분석을 하면서 면접가이드를 수정, 보완하였다.

면접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하였고, 면접 후 녹음된 자료는 자세히 전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신원이나 추정 가능한 정보는 가명과 기호로 표시하여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으며, 전사를 완료한 후에 녹음된 파일은 폐기하였다. 자료수집의 전 과정은 연구자가 속한 대학교의 생명윤리 위원회(IRB) 승인(2008/003-015)을 받았다.

3. 자료분석

심층면접 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주제를 발견하는 귀납적인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이때의 주제는 특정 현상을 체험한 연구참여자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 모두에게 핵심적이고 의미 있는 실체(entity)를 의미한다(Braun & Clarke, 2016).

분석과정은 주제분석법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Braun과 Clarke(2006)의 6단계에 근거하였다. 1단계에는 먼저 자료에 친

숙해지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사한 자료를 읽고 자료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2단계에서는 읽은 자료에 대해 연구참여자별로 코딩을 해 나가면서 연구진이 함께 의논하여 전반적인 코드를 정리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3단계에서는 코딩 과정에서 떠오른 소주제 중에 유사한 내용을 묶어가며 의미 있는 대주제를 도출하였다. 4단계에서는 도출된 대주제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었는지 검증하는 작업을 거쳤으며, 5단계에서는 대주제들의 범주를 구성하여 명명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는 도출된 범주를 통합해서 기술하는 서술 작업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3인이 여러 차례의 회의와 의견교환을 통해 분석과정 전반에서 논의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해 나갔다. 연구수행 과정에서 코딩과 범주화, 주제도출에 있어 지속적인 정교화와 수정 작업을 거쳤으며,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잘 반영하고 이해하며 분석하는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III. 결과 및 해석

1. 사춘기 길목의 아이와 엄마

사춘기의 시작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사춘기의 변화를 서서히 감지하였다. 자녀와 대화할 때 자녀의 짜증과 화, 감정의 기복을 자주 경험하였고, 원활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녀가 ‘문을 꽁 닫고 들어가

버리거나', 예전과 다르게 무엇을 시켜도 '고분고분하지 않고', "왜 내가 해야 해?"라며 말대꾸를 하는 자녀의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했다(윤은지, 노지원, 강성경 씨). 어머니들은 자녀가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소위 말하는 '사춘기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강성경, 오정현, 안유리, 박하은 씨). 노지원 씨는 예전에는 자녀가 엄마에게 와서 '확인해 달라'는 말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무엇을 물어봐도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 날카롭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드디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이순희 씨는 부모와의 외출을 꺼리고 밖에서도 '엄마를 보아도 못본 체'하며 주위를 의식하는 자녀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점차 자신의 경계와 세계를 만들어어나가는 자녀의 낯선 모습에 다소 준비되지 않은 사춘기를 맞닥뜨리고 있었다.

감정 기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빠지는 수가 많은 것 같고. 지금 시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뭐 이렇게 조금 하면 까르르 그냥 막 엄청 웃어요. 그래서 이게 뭐 사춘기가, 바람만 불어도 웃는다는 그 시기가 온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서로 저 아이도 어른이 되는 과정인가보다 그 정도 애기는 하는데, 막상 이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머 재 왜 빠졌어?' '어,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근데 이 4학년이라는 시기가 그게 시작되는 시기

같아요. (강성경)

어머니들은 자녀의 정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도 감지하였다. 2차 성징의 징후와 함께 호르몬의 변화로 가슴이 나오고 몸, 정수리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차미자, 정희경, 서은정 씨). 정희경 씨는 자녀의 몸에서 '전체적인 냄새'가 난다고 언급하며 샴푸를 바꿔가면서 자녀의 머리를 감겨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냄새가 난다'고 말하였다. 또, 예전보다 엄마의 몸을 관심 있게 바라봐서 샤워하고 나올 때 조심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강성경 씨는 자녀가 조금 있으면 '생리'를 시작할 텐데, '빨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아이 정서상으로는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 신체 변화 같은 거는 조금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자아이니까 이제 가슴 멍울이 조금 나온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정수리 냄새가 안 나고 겨울이었을 때는 이틀에 한 번 머리 감아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기름지기도 하고... 그런 신체 변화들은 조금씩 나타나서 본인도 신경 써요. 본인도 런닝에도 패드가 대어져 있는 여자아이들 런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꼭 입을라 그러고. (서은정)

어머니들은 이렇게 사춘기 초입에 진입한 자녀의 변화를 느끼기도 했지만, 어머니 또한 중년기의 징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몸이 피곤하고'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꼈으며 어머니 또한 감정기복이 생기고 예민해지

면서 울컥 화를 내기도 하였다(김연화, 노지원, 조순영, 이순희, 안유리 씨). 노지원 씨는 자신도 갱년기가 올 것 같은데 아이가 ‘다정해도 불만이고 모질어도 불만’이라 서로 ‘그때그때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제가 몸이 아프고 약간 이제 삶에 회의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러니까 애를 키우면서 이 연령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애도 조금 있으면 사춘기도 될 거고 예민해질 텐데 나도 조만간 갱년기처럼 온다거나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도 이제 체력이 안 좋으면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애 아빠도 회사에서 굉장히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래서 애를 차라리 더 어릴 때 낳거나 나중에 낳아야지, 정말 서로 제일 예민한 시기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지만 내가 애를 보듬어줄 수 없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조순영)

그러나 일부 어머니들에게는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로 체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행동하는 면이나 말하는 어투, 생각 등이 ‘아직 아기’ 같이 느껴졌고(김연화, 조순영, 송창숙 씨), ‘혼자 놔두기에는 빠뜨리는 것도 많고’, 옆에서 챙겨주고 돌봐줘야 하는 면도 여전히 많다고 생각했다(최송이, 송창숙 씨). 오정현 씨는 주변의 4학년 또래 친구들을 보면 성숙한 아이도 많은데, 내 자녀는 ‘애기 같아서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라고 하였다. ‘조금 더 약았으

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였고, ‘기도 작고 말라서’ 성장이 느린 것 같아 염려되기도 했다. 박하은 씨는 4학년을 ‘고학년인 것 같으면서도 아직 애는 어린’, ‘모든 게 애매한 학년’, ‘애매한 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어머니나 자녀 모두 변화의 과도기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게임과의 전쟁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큰 고민거리였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디지털기기의 사용은 더 늘어났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튜브와 게임,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자녀와 실랑이를 벌였고, 사춘기 징후를 보이는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였다. 식사, 숙제, 학원 등의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언성을 높이기 일쑤였다(노지원, 정희경 씨). 자녀들의 게임 실력은 한층 ‘레벨업’이 되었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에는 유튜브와 게임만 한 것이 없었다(오정현, 윤은지 씨). 송창숙 씨는 요즘 제일 불안한 부분이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동네 친구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게임에 접속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나 집에 와서 자녀의 핸드폰을 ‘초기화’시키기도 했다. 온라인 환경은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어머니들에게는 더 힘든 문제였다.

아이가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임을 왜 해 엄마?” 이랬어요. 근데 이제

무료하잖아요. 집에서. 그렇다고 이제 지금 한 7개월, 8개월 됐잖아요. 코로나. (중략) 다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벨업이 많이 됐다고. (웃음) 근데 아이랑 하루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거 만큼 무료함을 달래고 혼자 있는 적적함을 달래는 데는. 친구랑 더군다나 전화 비슷하게 이런 거까지 하면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윤은지)

또, 어머니들은 때때로 자녀가 고가의 신제품 게임이나 다소 폭력적인 게임을 설치해달라고 하거나, 친구와 ‘대화가 안 된다’며 게임이 친구와의 중요한 소통 창구임을 고집해 난감하기도 했다(송창숙, 윤은지 씨). 또, ‘웹툰’, ‘웹소설’ 같은 미디어 매체에 탐닉하는 모습을 보며 세대 격차를 실감하기도 했다(노지원, 오정현 씨). 윤은지 씨는 자녀가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기를 좋아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아 ‘활자보다는 영상에 빠져있는’ 자녀의 모습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조순영 씨나 차미자 씨는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이 더 많아지면서 좋지 않은 동영상을 접하게 될까 봐 불안한 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숙제를 한다고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 막상 어머니가 들어가면 ‘급 모드를 전환’하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 사춘기 자녀와 디지털기기로 인한 언쟁은 서로의 스트레스를 한층 가중시켰다. 시간을 유익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은 어머니들의 공통된 간절한 소망이었으며, 자녀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어 고민은 더 깊어갔다.

(한숨) 사실 안 되는 게임들 같은 거는 다 저희가 이제 뭐 배틀○○○○처럼, 요새는 총 쏘고 그런 것도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신랑이 그거는 안 될 거 같다고. 그래서 그건 안 깔아주고 뭐 카트○○○ 이 정도만, 그런 거 정도만 깔아주는데 아이는 계속 요구를 하죠. 자기만 안 한다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한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송창숙)

한 발짝 떨어지기

자녀는 사춘기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여러 면에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많아지고 질문의 깊이가 달라졌으며, 이해의 폭이 넓어져 어른스러운 대화가 통하기도 했다(문서연, 조순영, 김연화, 정희경 씨). 또, 대중교통을 혼자 타고 다니거나 동생을 책임지고 학교에서 데리고 오기도 했으며,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등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서은정, 김연화 씨). 강성경 씨는 자녀가 디지털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며 영상을 만들거나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자녀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스마트폰 기능에 관해 물어보면 자녀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으며, 원격수업 등에 자녀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했고, ‘별로 내가 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윤은지 씨는 외출할 때면 꼭 같이 따라나서던 아이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엄마 아빠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들은 성장하는 자녀를 보며 ‘언제 이렇게 컸지?’ 대견하기도 했지만, 자녀가 부모의 손을 점점 떠나고 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 별개로 영어학원에서 과제를 해가지고 온 걸 보면, 제가 보기도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 아 많이 컸구나. 음, 우리 ○○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숙하고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해내고 있는 부분도 있구나. 뭐 이런 뿌듯함도 들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이가 왜 군대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머지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도 막 드는 거예요. 지금 열한 살이지만 1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10년도 더 빨리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막 애똥한 마음도 들고. (윤은지)

어머니들은 또한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관여하는 부분이 점차 줄어들었다. 챙겨주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부모가 개입하는 부분이 적어지고 아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발 물러서는 경향을 보였다. 조순영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 친구가 아이 친구’여서 주변 어머니들과 소통하며 자녀의 친구 문제에 더 신경을 썼지만, 4학년이 되니 자녀가 스스로 자기와 맞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아이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 적어졌다고 하였다. 정희경 씨는 자녀와 감정적으로 ‘감당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생길 경우, 어머니는 한발 물러서고 남편을 개입시켜 아버지가 아이와 밖에서 활동하고 대화하며 풀도록 하였다. 또, 어머니들은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점점 벗어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아갔다. 오정현 씨는 예전에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통제를 했었는데, 그것이 자녀를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제는 간섭하는 것이 많이 줄었고,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좀 더 ‘서로 분리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하면서 ‘내 손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아이에 대해 ‘통제하기’보다는 ‘마음 비우기’, ‘내려놓기’를 경험하며 배우는 중이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많지 않겠다’, ‘길지 않겠다’, ‘앞으로 이것 이상의 일들이 많겠다’, ‘내가 마음을 빨리 비우는 연습을 해야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우리가 사춘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 아이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건 또 모르는 거라서 사춘기가 오거나 이런 반항들이 생겼을 때 제가 반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애네들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잘 설명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이해를 해야 애를 잘 다룰 수 있을까?’라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알

아서 잘 크겠지만 간섭을 좀 안 하고.
‘그래 너의 삶이야. 난 나의 삶이야.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위주로 하거든요.
(박하은)

어머니들은 이 시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함을 절감했다. 사춘기와 학습의 부담을 견뎌내야 하는 시기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듯 관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느꼈다. 아이의 반응에 엄마가 같이 감정이 상하고 짜증을 내면 갈등이 반복되었고, 자녀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하며 순간순간 마음을 읽어주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았다(이순희, 윤은지, 강성경 씨). 노지원 씨는 자녀에게 ‘멘토’를 만들어 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대화를 나눌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계를 느꼈고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누고, 인생 선배로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이순희 씨의 경우처럼 관계의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 어머니들에게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노력과 연습이 필요했다.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코로나 초반에도 (아이와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 기회에 좀 좋게 해야겠다. 큰일 나겠다 곧 사춘기가 오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노력을 했죠. 이제 화가 날 때 ‘야 너 왜 갑자기 화가 났어?’ 이렇게 물어보고, 꼭 참고. 그때는 막 ‘야,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야. 버릇없이.’ 막 이렇게 했다면, 이제 제가 꼭 누르고... 좀 노력을 했죠. 잘 안됐었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하니깐 애가 부드러워지더라구요. (이순희)

2. 4학년 아이 공부시키기

아이의 학습에 대한 불안, 사교육에 대한 고민

어머니들은 자녀가 4학년이 된 후 학습에 대한 부담과 불안이 컸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주로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자녀의 공부가 뒤처질까 봐 걱정했다.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를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건너가는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로 인식하였다. 3학년 과정이 심화되면서 교과목의 내용도 어려워지는데, 온라인 학습과 가정에서의 학습이 지속되니 학습격차에 대한 걱정이 더 밀려오기도 했다(이순희, 김연화, 차미자, 노지원, 조순영, 안유리 씨). 이순희 씨는 자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냥 넘어가게 되니까’ ‘뭔가 따로 가르쳐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고, 송창숙 씨는 학교는 안 가도 학원은 빠지지 않고 보내거나 선행학습을 시키는 주변 지인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해진다고 하였다. 또, 학원가가 형성된 동네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가야 되나’, ‘레벨 테스트라도 받아 봐야 되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지기도 했다(최송이, 윤은지 씨). 최송이 씨는 그동안 사교육을 계속해와서 그런지 사교육을 안 시키면 ‘불안한 마음’이 있다고 하였다. 윤은지 씨는 ‘○○동은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특화된 지역’인 것 같다고 언급하며, 그 동네의 학원 이야기를 들으면 ‘신세계’인 것

같다는 표현을 하였다. 사회적인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고, 흐름에 따라가자니 사교육에 대한 부담감과 아이와의 갈등이 마음 쓰였다.

○○의 친구 엄마는 본인이 과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에는 이 정도 학습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알고 있으셔서 그런지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이걸 해야 하고, 저한테도 4학년이면 선행은 좀 나가줘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애는 지금 4학년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놔둬야 될지, 저희 신앙은 ‘그냥 내버려두라’고 자꾸 하고. ‘학원을 보내주면 하겠냐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보내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놓아라.’ 이런 주의고요. 저는 그래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나. 여기 학습터에서 하루에 해야 될 양 정도 준 거는 니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놓치면 더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거 같아서. (송창숙)

그러나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이라는 것이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고 생각했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시켜야지’라는 생각으로 뛰어 들다 보면, 계속 자녀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 힘들어진다고 보았다. 사교육에 열성적인 다른 어머니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 이런 어머니들은 주입식 교육처럼 틀에 끼워 맞추는 교육보다는, 미래에는 ‘창의적인 게 더 필요한 세상’이 될 것이라

믿으며 남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내 자녀의 ‘성향’과 ‘잠재력’을 잘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강성경, 안유리, 윤은지, 서은정 씨). 서은정 씨는 주변에서 ‘나중에 후회한다’, ‘나중에 더 큰 돈 들인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잠깐씩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엄마 등쌀에 밀려’ 학원에 가도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다. 안유리 씨는 4학년이 되고 고학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니까 자신이 ‘너무 사회와 동떨어진 생각’을 하지 않나 ‘초심’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되도록 배제하거나 최대한 늦게 시키려고 했지만 때때로 마음이 흔들렸다. 어머니들에게 자녀의 학습과 교육은 어려운 과제였다.

엄마도 교육관에 대한 중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 할 것이다’, ‘난 이때, 이때 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는데 항상 흔들리죠. 주변에 말들도 많고 이게 또 다 내 사례는 아니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애는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다더라’, ‘재는 지금은 저런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많잖아요. (박하은)

공부 습관 들이기

어머니들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니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 공부의 비중이 높아졌

으며, 4학년 시기에 무엇보다 ‘기초학습’을 탄탄히 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4학년은 5, 6학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단추’라고 여기고 4학년 때 ‘공부 습관’을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했다(안유리, 김연화, 노지원 씨). 특히, 수학은 기초를 잘 다지고 넘어가야 그다음 단계를 할 수 있어서 더욱 신경을 썼다(윤은지, 최송이 씨). 이순희 씨는 4학년부터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정충 뛰는 느낌’이라고 언급하였고, 김연화 씨는 자녀의 수학 쪽지시험 결과를 보고 ‘부라부라 학원에 등록’을 하였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와 학원에 잘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자녀가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길러서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랐다. 책을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도 컸는데, 책을 읽게 하기도 쉽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는 것이 어려워져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였다(최송이, 윤은지 씨).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아이들 관찰을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10년 가까이 아이들 관찰해본 결과 4학년 때 공부를 안 하던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너무 힘들어해서. 차라리 4학년 때 공부를 하고 5, 6학년 때 좀 놀면 중학교 때 따라잡긴 하더라고요. 근데 4학년 때 공부를 안 하면 5, 6학년, 중학교 다 놓치게 되니까. (중략) 4학년 때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용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특히 사

회, 과학. 3학년 때에 비해서 4학년 때 사회의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져요. (노지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공부를 시키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자녀가 힘들어하지만, 현재의 학습량을 따라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밀어붙이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송이 씨는 주변에 자녀를 먼저 키운 고학년 어머니들로부터 ‘한번 무너지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말을 들어서 ‘일부러 더 많이 구속’을 한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와 ‘트리블’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였다. 예전 자신의 성장기 모습과 비교해 자녀에게 너무 높은 기준으로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공부를 시키는 것에 따라 ‘격차가 커지고 확연히 실력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다. 조순영 씨는 남들이 하는 대로 ‘선행학습’을 시키고, ‘가기 싫어하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고, ‘읽기 싫어하는 책’을 읽게 하는데, 딱히 다른 방법이나 해결책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송창숙 씨는 자녀가 자신을 닮아 공부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볼 때면, ‘나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서 공부를 더 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실력에 대한 욕심과 기대로 채근하는 자신의 모습과 끊임없이 마주하였다. 한쪽으로는 ‘내려놓자’ 하다가 또다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

논술 같은 경우가 수업이 저녁에 좀 늦게 있어요. 그러니까 졸려서 안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

는데, 그런데 웬지 다들 다른 친구들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많이 다니는 학원을 보냈더니 안 가면은 이제 뒤처질 것 같고 그런 걱정 때문에 좀 무리해서라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중략) 어렸을 때는 그냥 제가 학원 다닐 때 힘들었으니까 나는 아이를 낳으면 학원도 안 보내고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게 이상적으로 내가 원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송이)

내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어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교 수업과 더불어 소위 ‘엄마표 공부’라는 가정학습을 병행하였다. 교과목별 문제집을 집에서 풀게 하는 경우가 많았고, 독서와 영어 단어, 한자 등 다양한 면에 신경을 썼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다 보니 부모의 학습지원이 더 필요했다. 어머니들은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나 과제 등을 도우며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더 알게 되었지만,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지도는 쉽지 않았다. 자녀의 집중력과 주의력이 분산되어 잔소리를 하게 되었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했다. ‘어떻게 이것을 모를 수 있나’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고, 어머니의 지도가 도리어 자녀가 ‘공부하기 싫어하는’ 역효과가 나기도 했다(이순희, 노지원 씨). 노지원 씨는 독서논술과 NIE (newspaper in education) 자격증이 있지만, 자녀

에게는 활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자료도 많고 자녀와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자녀가 어머니와는 신문이나 책을 읽고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아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하은 씨는 저학년 때 어머니가 하지 않던 숙제나 글쓰기 지도를 4학년이 되어서 하려니까 그동안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였다.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모르면 수학 문제 하나를 못 풀면 끈질기게 설명을 해줘서 이 방법, 저 방법 써줘서 이해를, 그 문제를 풀 수 있게끔은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제 아이한테는 그 정도가 인내심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한두 번 설명을 해줬는데 이해를 못 하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결국은 “야 너는 이것도 못 해?”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하기 싫어 가지고 그래서 “정 니가 모르겠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니가 이 방법 저 방법 해봐. 여기서도 찾아보고 저기서도 찾아보고. 니가 정말 모르겠으면 답지를 보고 서라도 해봐. 그러고도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봐.” 그렇게 대답했어요. (노지원)

또, 어머니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배워야 할 부분을 때때로 어머니가 감당하려니 애로점이 있었다. 이순희 씨는 ‘어른이 봤을 때도 쉽지 않은 내용’이 있고,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교과서에 ‘답이 나와 있지 않아서’ 맞는 답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도 했다. 정희경 씨는 자

신의 전공이 ‘예체능 계열’이다 보니 과목에 따라서 ‘웁쩍하게 되는’ 면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가 질문했을 때, 같이 풀 수 있어야 하는데, ‘수업적인 부분에서 막히니까’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세월이 지나서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아 난처하기도 했으며,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였다.

이제 저희는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지문만 나와 있거나 없어요. 답 같은 게 없고 그림 있고 지문 나와 있고 이런 책도 많고.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교과서만 보면 공부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걸 어떻게 가르치나, 방식을 우리 때 했던 방식처럼 가르치나? 아니면 요즘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 이런 것도 되게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 방법적인 면에서 계속 생각을 해요. (이순희)

3. 나는 11년 차 엄마

삶의 중심은 아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몰입하고 헌신하며 생활했다.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줄였고, 자녀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았다. 모든 생활이 ‘다 애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하였으며(정희경, 최송이, 송창숙, 조순영 씨), 쇼핑하거나 먹을 것을 살 때도 ‘아이 거’를 구입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정희경 씨는 삶의 초점이 자녀에게 맞춰져 있어서 ‘내 인생이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자신을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며 자기관리를 철저하게 했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다. 어머니들은 때때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품 안에 있기에’, ‘일단은 접어 두고’, ‘아이들을 위해 살자’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지금 이제 제 인생이, 다 제 삶이 다 아이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나거나. 모든 게 다 아이와 관련돼있고. 제가 하루 하는 말의 90% 이상이 다 아이와 관련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데만 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제가 뭐 저를 위해서 살면은 웬지 아이에게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까요? 또, 지금 아니면은 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은 제가 뭐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해주고 싶어도 아이들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좀 아이들한테 충실하게 같이 시간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송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가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자녀에 대한 집착을 놓기 어렵다고 하였다. 자녀의 장래를 위해 교육적인 투자를 더 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이라 도리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을 갖기도 했다. 송창숙 씨는 학원 등록비가 부담스러워도 자녀를 위해 기꺼이 지출한다고 하였고, 큰아이를 보면 ‘그냥 내 분신 같다’고 표현하였다. 조순영 씨는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울인’ 하는 면을 인정하면서, 남편과 아이를 대할 때의 ‘말투와 눈빛이 달라’ 남편이 불만을 토로한다고 하였다. 또, 엄마밖에 몰랐던 아들이 커서 ‘놓아야 할 때’가 오면 서운하고 상실감이 클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하였다. 박하은 씨는 과거 자신의 성장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지극정성으로’, ‘더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 마음을 쏟으며 헌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면이 있었다.

그냥 저희 애, 큰애에 대한 느낌은 그냥 제 분신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일과 중에 주로 저의 일과는 일 아니면 큰아이인 거 같아요. 무슨 관계인지를 모르겠어요. 애증관계인 건가? 자꾸 그 아이, 잘 키우고 싶고 그게 좀 너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신경을 쓰면 쓸수록 애가 들어지는 게 보이는데도 놓지를 못하겠어요. 둘째 아이한테는 그렇지 않는데 큰애한테는 뭔가... (송창숙)

엄마의 시행착오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운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부족함과 아쉬움을 많이 느꼈다. 어머니 역할을 처음 하게 된 ‘첫 아이’였기에 실수가 많았고, 과거로 돌아가면 ‘좀 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어릴 적 육아서적이거나 자녀양육서를 보며 ‘책으로 배운’ 양육방식은 요령이 부족해서 도리어 나중에 그 스트레스가 아이에게 짜증으로 표현되기도 했고(이순희 씨), 부모교육을 받으러 다니며 노력은 했지만 잘 변화하지 않는 자신을 고백하기도 했다(차미자, 송창숙, 박하은 씨). 또, 남편에게 섭섭한 마음이나 시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기도 했고, 때때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화를 냈다는 점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박하은 씨). 자녀가 주의력결핍장애(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증상이 있는 차미자 씨의 경우, 어릴 적 병원에 데려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마음을 쓰기도 했다. 송창숙 씨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부분을 챙겨주다 보니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며 자율성을 키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어린아이처럼 ‘책가방도 챙겨주고’, ‘정리하고, 치워주고’ 아이가 할 일을 먼저 해주다가 ‘4학년이 되어 갑자기 스스로 하라고 넘겨주니까’ 아이와 갈등이 생겼다고 하였다.

큰 애라서 시행착오가 많은 거 같기는 해요. 치료실을 전전했던 것부터 이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4학년인데 (키가) 155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성인 여성 키만 한 거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어디 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제 애에 맞는 커리큘럼, 치료스케줄 이런 거

를 잡았어야 되는데 애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문제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차미자)

많은 어머니는 자녀를 키운 지난 10년 간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이순희, 서은정, 오정현, 노지원, 송창숙 씨). 서은정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우선 친구 엄마와의 관계가 신경 쓰여 자녀에게 무조건 양보하고 사과하도록 아이를 다그쳤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다. 노지원 씨는 엄마의 기준을 자녀에게 요구하다 보니 ‘내 목소리만 커지는 것’ 같고, 때때로 ‘아이를 너무 잡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일이 바빠서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학습적으로 이것저것 시키며 강요했던 것이 현재 자녀와의 소통에서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후회가 밀려오기도 했다(이순희, 송창숙 씨). 어머니들은 나름대로 자녀를 잘 키우려고 노력했지만, 어머니로서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을 깨달으며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을 갖고 있었다.

‘그때 잘해줄걸’, ‘못 해줬다’,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재가 지금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 때문에 항상 육아하는 거나 공부시키는 것도 그런 부분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애가 지금 이걸 잘할까?’,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되게 잘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그냥 다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노

력은 하지만 저희가 항상 배우잖아요. 왜냐하면 ‘말은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러는데 들을 때는 ‘그렇게 해줘야지’ 하지만 딱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어렵고 후회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박하은)

엄마도 성장 중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키워봐야 어른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들은 첫 아이가 태어나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낯설고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으며, 자녀를 키우면서 매 순간 엄마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어떡하지?’ 하며 가르쳐야 할 것에 불안하고 조금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고 하였다.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녀 교육에 있어 내 아이의 수준과 기대에 맞춰가며 자녀에게 집중하게 된다고 하였다(정희경, 서은정 씨). 또,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앞에서 또 다른 무게를 느끼기도 했다. 차미자 씨는 자녀가 자라면서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 같다’면서, 아직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기겠거니’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아직도 아이를 파악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아이를 보면서 배워가고

있어요. 저는 아이한테 그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엄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면 “엄마 서른 다섯?” 그러면 “아니야. 엄마 나이는 너랑 같아. 11살이야. 엄마도 너 낳고 엄마가 된 거니까 엄마도 엄마 나이 11살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어른으로서 너보다는 세상을 좀 더 많이 살았으니까 너한테 바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바르고 옳은 건 아니야. 너가 더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서은정)

또한,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키우며 느꼈을 감정을 내 자녀를 통해 느껴보기도 했다. 몸이 기억하고 체화한 듯 친정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대로’ 말과 행동이 나오기도 했으며, ‘어머니도 이런 감정이었겠구나’라는 생각에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다(안유리, 서은정 씨). 또, 자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공부에 관심이 없는 것이나 욕하는 성격, 상처를 잘 받는 모습 등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성향까지 닮은 자녀를 보며 ‘진짜 나 같다’,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윤은지, 송창숙, 오정현 씨).

자녀가 커갈수록 친구처럼 의지 되는 부분도 있었다. 노지원 씨는 ‘누구를 닮아서 저렇까’ 화가 나기도 했다가, 자녀가 “엄마 힘들어? 괜찮아?”라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 ‘아이 없이 어떻게 사나’라는 생각이 들고 힘을 얻는다고 하였다. 안유리 씨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자신의 말투나 행동을 ‘흡수하는 것’을 지켜보며 경각심을 갖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4학년이 된 지금도 ‘4학년이 처음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자녀를 통해 배우며 아이의 성장과 함께 엄마도 성장하고 있었다.

물론 더 값진 유산들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좋은 정서, 좋은 인성 그런 걸 심어 주고 싶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주 양육자의 역할이고. 이걸 넘겨주고 싶든 안 주고 싶든 아이는 다 흡수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부모가 거울이라고들 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아이를 키우면서 (친정) 엄마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많이 스며들겠구나. 그래서 내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유리)

나를 찾고 싶은 마음

어머니들에게 우선순위는 늘 자녀였지만 점차 마음 한편에서는 엄마로서가 아닌 자신의 개인적 성취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였다. 전업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에게 매달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의 일은 나중으로 미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녀가 크고 나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전업어머니들은 경력단절로 다시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자아실현’과 같은 ‘아이로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느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엄마가 ‘사회에서 일하고 활동하는 모습’이 도리어

자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다(안유리 씨). 취업상태인 어머니들은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하며 직장일과 가정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 일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다고 하였다(김연화, 조순영, 윤은지 씨).

이제 좀 일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4학년이고 여자아이고 야무져서 나도 이제 육아에서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네요. (중략) 아이가 4학년이 되니까 저도 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비로소 생긴 것 같아요. 물론 다들 첫 번째가 사실 아이이기는 하죠. 가정이고. 그런데 제 인생 자체로도 한번 좀 다시 설계해보고 싶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아이에게도 더 좋은 모습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또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다 보니까 많이 제가 없어지고 아이 엄마로서만 남는 것 자체로도 서글프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더 계발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안유리)

어머니들은 자녀를 키우며 달라진 자신을 대면하기도 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했다(김연화, 노지원, 최송이, 박하은 씨). 소극적이던 성격이 ‘대담해지고’, ‘사교성’이 생기기도 했으며, ‘아줌마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박하은 씨는 가끔 거울을 보며 ‘이게 누굴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외모뿐

아니라 ‘예전에 내가 어땠지?’라는 생각을 하며 뭔가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 조순영 씨는 자녀를 낳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양육의 부담 없이 삶을 즐기는 모습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만약에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음 생애는 내 인생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은지 씨는 아이도 중요하고, 어머니역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자존감’이라는 측면에서 ‘나도 성장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자녀에게 의지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며,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세컨잡(second job)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어머니들은 아이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온전한 나’로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있었다.

(아이들) 있으면 신경 쓰이고 없으면 보고 싶은 이런 거? 없으면 이상한데 있으면 또 불편하고 뭔가 좀 그렇다고 제가 모성애가 없는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것 같지도 않아요. (중략) 귀하고 좋은 존재이긴 한데 가끔 같이 너무 오래 있을 때는 혼자 있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나한테 말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냥 나 혼자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2명, 3명에서 말 시키고 그러면 대답해주기도 힘들고 누굴 먼저 대답해줘야 될 지도 모르겠고. (박하은)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실천자로서 체험한 것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서 어머니가 경험한 자녀와의 관계 변화와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갖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어머니의 정체성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첫 자녀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어머니 15명과 심층면접을 실시한 자료를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사춘기 길목의 아이와 엄마’, ‘4학년 아이 공부시키기’, ‘나는 11년 차 엄마’라는 3개의 대주제 하에 ‘사춘기의 시작’, ‘스마트폰, 게임과의 전쟁’, ‘한 발짝 떨어지기’, ‘아이의 학습에 대한 불안, 사교육에 대한 고민’, ‘공부 습관 들이기’, ‘내 아이는 가르치기 힘들어’, ‘삶의 중심은 아이’, ‘엄마의 시행착오’, ‘엄마도 성장 중’, ‘나를 찾고 싶은 마음’이라는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실천에서 드러난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점차 한 발짝 떨어져 ‘내려놓음’을 배우고 있었다. 사춘기 초입에 들어선 자녀는 신체적, 정서적으로 서서히 사춘기의 징후를 나타내었다. 짜증과 감정기복을 보이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자기주장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들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자녀에게 되도록 맞추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자녀의 변화가 심적으로 힘들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그동안 지키고 배웠던 규칙과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고, 부모의 의견이 옳고 이를 따르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유 없이 부모의 의견에 맞서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된다(신의진, 2011).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지면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이 불가피하게 사춘기를 시작하는 자녀에게는 ‘바라봄’이 필요하며, 누군가를 바라봐준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조언을 한다(김선호, 2017). 선행연구(구미희, 권혁철, 2020;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18;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를 이해하고 자녀의 감정적 변화에 적절히 반응해야 하며, 이전의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통제하고 훈육하려 하면 오히려 반발심을 키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모-자녀관계에서의 변화를 수용하며 더 유연한 대응과 인내가 요구됨을 깨달아 갔다.

한편으로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한 모습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했으며, 엄마의 도움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며 애뜻한 마음이 교차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았고, 아이가 마냥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모습에서 자율성의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

져 덜 간섭하고 스스로 자기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두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세계를 향해 분리해 나가려는 자녀의 모습을 마주하며 서서히 부모의 손을 떠나고 있음을 느끼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점차 알아갔으며, 정서적으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마음 비우기’와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차 개별화(Blos, 1967), 분화(Allison & Sabatelli, 1988; Bowen, 1978) 등의 개념이 설명하는 청소년기 발달과 맞닿아 있다. 또한 어머니들은 때로는 자연스럽게, 때로는 부모교육 등을 통하여 거리조절(Bartle-Haring, Younkin, & Day, 2012; Bowen, 1978)과 같은 청소년기 부모역할 전략을 체득하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어머니들은 학습과 관련하여 흔들리는 두 마음의 경계에 서 있었다. 하나의 마음은 자녀의 학습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사교육에 적극적인 마음이었다. 4학년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의 연결고리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자녀의 ‘공부’에 신경을 썼다. 기초학습을 탄탄하게 잡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학습내용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고자 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열성적인 지인들로 인해 불안해져서 자녀에게 학습을 더 밀어붙이기도 했고, 이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높은 교육열과 학벌주의에서 성장한 어머니들이기에, 학업성취 측면에서 어머니 자신이 경험한 결핍을 자녀의 학업과 연결하여 더 집착

하고 보상받고자 하는 심리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초등학교 4학년은 교육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학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 육아서에서도 이 시기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공부기술이 부족한 경우 지치기 쉽고 학습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하며(신의진, 2011), 공부습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이미애, 2020). 자신의 자녀가 학습 측면에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의 불안은 컸다. 이 때문에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소망과 기대에서,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준비시키는 도구적인 모성 역할(노영주, 한경혜, 2000)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사춘기 초입의 자녀는 반항적인 태도와 자기주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과 관련하여 어머니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이 느슨해지면서 자녀를 공부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부모와 마찰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머니들은 끝없는 사교육의 경쟁에 반기를 들며 자녀의 성향과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대안적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몰두하며 일률적으로 단계를 쫓아가는 것이 옳은지 갈등하였다. 일부 어머니들은 사교육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어머니의 주관대로 학습관리를 해 나가고 있었다. 이런 어머니들은 사교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학습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하였고, 앞으로는 좀 더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며,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저절로 잘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자녀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박혜경의 연구(2009)에서도 어머니들은 자녀교육 경쟁에 집중하며 참여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교육 경쟁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비판적 태도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교육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고, 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에는 자신의 교육관과 부딪치며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의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고 있었다.

셋째, 어머니들은 고군분투하며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의 삶에서 자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모든 생활은 자녀 중심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잘 키워내는 것'이 어머니의 중요한 임무이자 책임이었다. 자녀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았고, 자녀의 학습을 위해서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였다. 또, 부모교육을 통해 배운 유익한 정보와 기술을 적용하려고 애썼다. 어머니들은 자녀돌봄, 자녀교육, 가사노동을 전담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엄마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반추하였고,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죄책감은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현상이며 상당 부분 모성이데올로기나 집중적 어머니역할 이데올로기에 기인한다는 것은 국내외 선행연구(Collins, 2021; Rotkirch & Janhunen, 2009)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부계가족주의와 성별분업의 논리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

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머니 자신이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오은영, 2017).

그러나 어머니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어머니로서 강해지고 있었다. 소극적이던 성격이 아이 때문에 '대담해지기도' 했고,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들이 생기면서 어머니 자신도 변화해갔다. 어머니들은 자녀가 4학년이 된 것도 처음이기에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처음'이라는 것이 긴장되기도 했지만, 예전의 불안하고 조급했던 마음이 보다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성격이나 성향까지 닮은 자녀를 보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엄마 나이를 묻는 자녀의 질문에 '너랑 같아. 11살이야. 엄마도 너 낳고 엄마가 된 거니까'라고 대답한 것처럼, 어머니들은 자녀가 성장하듯 어머니로서 새롭게 깨닫고 배우며 엄마로서 성장 중이었다.

넷째, 어머니들에게 나 자신을 찾고 싶은 마음이 꿈틀거렸다. 어머니의 삶에서 자녀의 비중이 절대적이고 양육자로서 책임감이 컸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라는 역할 외에 '나' 자신의 일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어머니들은 '엄마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때로 개인적인 '나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지난 시간 '나'라는 개인성은 약해지고 '엄마'로서 대체되어 살아온 것 같아서 '나의 존재'를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전업주부 어머니들은 '나의 일'을 통해 사회적인 성취를

느끼고 싶어 했고, 일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생각은 잠시 밀어두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원하기도 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모성은 자녀양육을 통해 어머니의 정체성을 획득하고 확립해나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노영주, 한경혜, 2000). 그러나 어머니가 중년기에 접어들고 자녀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질문하며 자아실현에 대한 해소되지 않은 갈망을 경험한다(한경혜, 노영주, 2000). 신체적 노화의 증상도 나타나고, 자녀를 보살피는 것이 주된 기능이 아니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기존의 어머니 정체성에 이러한 변화를 통합시켜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점차 자녀로부터 분리하여 나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느꼈으며, ‘엄마’로서의 삶에 몰두하기보다 개별적인 ‘나’ 자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자녀양육과 자기성장 사이에서 갈등하였다. 직장에 우선순위를 둘 때는 자신이 너무 ‘이기적인’ 엄마가 아닌지 고민했으며, 좀 더 아이를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모성이데올로기가 강한 사회에서 ‘엄마로서의 여성’과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Davies & Welch, 1986)를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경험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은 엄마’, ‘매니저 엄마’에 대한 사회적 기대, 그리고 어머니에 앞서 개별적인 인간으로서의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페미니즘의 확산이 공존하는 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양가성(Connidis & McMullin, 2002)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모순적인 사회규범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 규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고뇌하고 갈등하고 죄책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양가성을 세대관계에 적용한 선행연구(Kalmijn, 2020)는 대부분 노인을 부양하는 성인자녀의 죄책감과 같은 감정에 주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오늘날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갈등이나 죄책감도 사회적 양가성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초기 사춘기 자녀나 자녀의 사춘기 진입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모를 표적집단으로 하는 부모교육과 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보면 부모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는 초기 사춘기의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방법,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기술,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에 따른 대처전략, 자녀가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어머니들의 정서적인 갈등과 고충, 내면의 욕구 등을 이해하고 자기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및 상담 등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갖는다. 우선, 개별성과 특수성에 주목하는 질적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만을 연구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강점이자 한계이다. 즉,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집중한 연구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다른 학년과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고유한 특성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사춘기에 진입하는 시기에는 개인차가 있어서 모든

연구참여자의 자녀가 사춘기 전이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며, 코로나19 시기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도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어머니들의 양육경험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자녀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부분의 수업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어머니들은 자녀의 학습지원과 시간관리, 식사 등을 챙기며 관계의 어려움과 부담이 가중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계로는 연구참여자가 모두 기혼상태의 어머니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아버지역할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에도 유사점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혼상태인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당연하기 때문에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 한부모 어머니의 양육체험에서는 부각 될 가능성도 있다. 한부모 어머니들의 자녀양육이나 모성경험에 관한 선행연구(강영심, 천성문, 2014; 류금란, 최은실, 2020; 최명선, 류진아, 박희정, 2007)는 다수 있지만, 초기 사춘기의 맥락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재하다. 앞으로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한부모 어머니의 양육체험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초기 사춘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을 심도 있게 탐색해 봄으로써 실증적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어머니의 양육실천을 담아내었다. 또, 모성이테올로기와 여성의 개별성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한국 사회 양가성의 맥락에서 어머니로서 10년 이상 살아온 여성들의 갈등과 고민, 고군분투와 성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

의가 있다. 초기 사춘기 모-자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며, 양육실천자로서의 어머니는 모-자녀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가는지를 풍부하게 살펴보고 초기 사춘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문정, 강대중 (2017). 초등학교 학부로 되기: 상위권 자녀를 둔 서울 거주 중산층 엄마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4(2), 63-87.
- 강버들 (2020). 모가 경험하는 사춘기 자녀 양육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11(4), 101-120.
<https://doi.org/10.20512/kjace.2020.11.4.101>
- 강영심, 천성문 (2014). 사춘기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재활심리연구*, 21(3), 601-625.
- 구미희, 권혁철 (2020). 감성코칭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서조절과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4), 151-173.
<https://doi.org/10.21321/jfr.24.4.151>
- 권경숙 (2008). 영아를 보육하는 초보 어머니들의 양육 특성과 어려움에 관한 질적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1), 229-255.
- 권상인, 양지웅 (2019). 어머니의 사춘기 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5), 143-166.

-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5.143>
- 김선호 (2017). 초등 사춘기 엄마를 이기는 아이가 세상을 이긴다. 서울: 길벗.
- 김소연 (2017). 청소년기 자녀 양육 경험을 통한 ‘엄마 되기’. 질적탐구, 3(1), 97-131.
- 김소윤, 최성우 (2015). 초등 고학년 자녀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어머니의 촉진 경험 탐색: 고학력 어머니를 중심으로. 평생교육·HRD연구, 11(3), 67-95.
- <https://doi.org/10.35637/klehrd.2015.11.3.003>
- 김아연, 박보경, 김수지, 이선희, 도현심 (2017).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4(8), 161-193.
- <https://doi.org/10.21509/KJYS.2017.08.24.8.161>
- 김영선, 이재립, 최정아 (2021). 코로나19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 양육 및 자녀교육 경험. 인간발달연구, 28(3), 139-165.
- <https://doi.org/10.15284/kjhd.2021.28.3.139>
- 김윤희, 김현숙 (2016).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성별 및 애착 관계의 영향. 상담학연구, 17(3), 337-354.
- <https://doi.org/10.15703/kjc.17.3.201606.337>
- 김창복, 이신영 (2013). 자녀의 초등학교 전이 및 적응에 대한 어머니들의 이야기.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319-350.
- 노영주, 한경혜 (2000). 50대 중년 여성의 모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1-22.
- 류금란, 최은실 (2020). 회복탄력성이 높은 한 부모 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38(1), 17-39.
- <https://doi.org/10.7466/JKHMA.2020.38.1.17>
- 류수민, 이하정 (2015). 생태적 교육배경을 지닌 부모의 부모 되기 경험의 의미: 잉태준비기·임신·출산·양육과정을 중심으로.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51-77.
- 박소진 (2007). 공간적 위계수사와 구별짓기: 강북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내러티브. 한국문화인류학, 40(1), 43-81.
- 박소진 (2009).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율주의적 주체. 경제와사회, 84, 12-40.
- 박재숙 (2011). 초기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참여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복지연구, 13(4), 47-69.
- 박태경, 박재연 (2018).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효과성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2), 783-791.
- <https://doi.org/10.21742/AJMAHS.2018.02.38>
- 박혜경 (2009). 한국 중산층의 자녀교육 경쟁과 ‘전업 어머니’ 정체성. 한국여성학, 25(3), 5-33.
- 소수연, 안지영, 양대회, 김경민 (2014). 초기 청소년기의 변화에 대한 부모-자녀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청소년·부모 FGI를 중심으로 -. 청소년상담연구, 22(1), 247-279.
- <https://doi.org/10.35151/kyci.2014.22.1.011>
- 신의진 (2011). 신의진의 아이심리백과: 초등 고학년 편. 서울: 걷는나무.
- 오은영 (2017).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 서울: 김영사.

- 오지현 (2013). 초기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 척도 타당화. *인간발달연구*, 20(2), 43-69.
- 윤택림 (2001). 한국의 모성. 서울: 지식마당.
- 이미애 (2020). 초등 엄마 관계 특강. 서울: 물주는아이.
- 이진희 (2015). 페미니스트 관계적 관점에서 본 ‘좋은’ 어머니되기과 산후우울증 - 마우트너(Mauthner)의 논의를 중심으로 -. *페미니즘연구*, 15(2), 107-158.
- 이진희, 배은경 (2013). 완벽성의 강박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은 어머니’(good-enough mother)로 - 위니캇의 유아정서발달이론과 어머니노릇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13(2), 35-75.
- 전가일, 전현욱 (2017). 부모-되어감의 이해를 위한 비교체험 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0(3), 149-188.
<https://doi.org/10.17318/jae.2017.20.3.005>
- 정미라, 김경숙, 이방실 (2013).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지원에 대한 질적 연구. *유아교육연구*, 33(2), 163-189.
<https://doi.org/10.18023/kjece.2013.33.2.008>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18).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학지사.
- 정은경 (2009). 생후 36개월 미만아 자녀를 둔 부모의 부모되기 경험의 의미.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3), 87-108.
- 차영숙, 유희정, 강민정 (2017).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로의 전이과정에서 어머니 경험에 대한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8), 1-27.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8.1>
- 최명선, 류진아, 박희정 (2007). 한부모가족 여성가장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75-95.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성별, 학교급별 비교 -. *상담학연구*, 16(2), 233-247.
<https://doi.org/10.15703/kjc.16.2.201504.233>
- 한경혜, 노영주 (2000). 중년 여성의 40대 전환기 변화 경험과 대응에 대한 질적 연구. *가족과 문화*, 12(1), 67-91.
- 황경아, 홍지아 (2011). TV매체에 재현된 한국 사회의 모성실천: 리얼 다큐멘터리 <슈퍼맘 다이어리>의 슈퍼맘 노릇하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9, 213-252.
- Allison, M. D., & Sabatelli, R. M. (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1-16.
<https://doi.org/10.1177/074355488831002>
- Bartle-Haring, S., Younkin, F. L., & Day, R. (2012). Family distance regulation and school engagement in middle-school-aged children. *Family Relations*, 61(2), 192-206.
<https://doi.org/10.1111/j.1741-3729.2011.00698.x>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1), 162-186.
<https://doi.org/10.1080/00797308.1967.11822595>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 Psychology*, 32), 77-101.
- Braun, V., & Clarke, V. (2016). (Mis) conceptualising themes, thematic analysis, and other problems with Fugard and Potts' (2015) sample-size tool for thematic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Research Methodology*, 19(6), 739-743.
<https://doi.org/10.1080/13645579.2016.1195588>
- Choi, P., Henshaw, C., Baker, S., & Tree, J. (2005). Supermum, superwife, supereverything: Performing femininity in the transition to motherhood. *Journal of Reproductive and Infant Psychology*, 23(2), 167-180.
<https://doi.org/10.1080/02646830500129487>
- Collins, C. (2021). Is maternal guilt a cross-national experience?. *Qualitative Sociology*, 44(1), 1-29.
<https://doi.org/10.1007/s11133-020-09451-2>
- Collins, W. A., & Laursen, B. (2004).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nfluences. In R. Lerner & L. Steinberg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2nd ed., pp. 331-362). New York: Wiley.
- Connidis, I. A., & McMullin, J. A. (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3), 558-567.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2.00558.x>
- Davies, B., & Welch, D. (1986). Motherhood and feminism: Are they compatible? The ambivalence of mothering. *Journal of Sociology*, 22(3), 411-426.
<https://doi.org/10.1177/144078338602200305>
- Hays, S. (1996).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motherhoo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lmijn, M. (2020). Guilt in adult mother-child relationships: Connections to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nd suppor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75(4), 879-888.
<https://doi.org/10.1093/geronb/gby077>
- O'Reilly, A. (2004). *From motherhood to mothering: The legacy of Adrienne Rich's of women bor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 심리학 (제12판).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역). 서울: 시그마. (원본 발간일, 2008)
- Rotkirch, A., & Janhunen, K. (2009). Maternal guilt. *Evolutionary Psychology*, 8(1), 90-106.
<https://doi.org/10.1177/147470491000800108>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https://doi.org/10.1111/j.1469-7610.2009.02207.x>
- Steinberg, L. (2005). *Adolescence* (7th ed.). New York: McGraw-Hill.
- Takševa, T. (2017). Mother love, maternal ambivalence, and the possibility of empowered mothering. *Hypatia*, 32(1), 152-168.
<https://doi.org/10.1111/hypa.12310>
- Winnicott, D. W. (1964). *The child, the family, and the outside world*. Harmondsworth: Penguin.

1 차원고접수 : 2021. 07. 1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7.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Mothering Practices and Reconstruction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Early Puberty: Lived Experiences of Mothers with 4th Graders

Choi, Jung-Ah

Lee, Jaerim

Kim, Youngsun

Dodammindcarecenter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mothers' experiences during their child's transition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s active agents who practice mothering and who co-construct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with their developing child. Our interview participants were 15 mothers whose first child was in 4th grade. Our thematic analysis revealed two overarching themes and several subsequent themes. The first theme, "the mother and the child at the corner of puberty," had three sub-themes: (a) the beginning of puberty, (b) fighting against smartphones and online games, and (c) learning to stay one step away from the child. The second theme was "managing the 4th grader's studies," which included three sub-themes: (a) anxiety about academic achievement, considerations about private education, (b) creating study habits, and (c) difficulties teaching one's own child. The third theme, "a mother with 10 years of experience," included four sub-themes: (a) the child as the center of life, (b) trial and error as a mother, (c) on-going growth as a mother, and (d) desire to pursue their own identity and career. In the context of sociological ambivalence between the ideology of motherhood and an emphasis on women's individual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in early puberty and by revealing the efforts, struggles, and personal growth of mothers who had practiced mothering for a decade.

Keywords: motherhood, maternal identity, mothering, early puberty, early adolescence